

성별	남	나이	59세	직종	채광	직업관련성	있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	-------	----

1. 개요

김○○는 1971년부터 2008년까지 광산 일을 하였다. 2005년부터 건강진단 결과 양측의 소음성 난청 의심소견을 보였고, 주위 사람들과 대화도 어려웠다. 2010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.

2. 작업환경

김○○는 19살 때부터(1971년) 약 31년간 광산 일을 했는데 22살 때부터 착암 작업을 배웠으며 이때부터 30세까지 채탄작업을 하였다. 광산 일은 발파, 한마, 착암, 채광, 운반으로 이루어져 있다. 현재에는 굴진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채광과 운반이 주 업무이다. 이 업무 중에서 발파 작업을 제외하면 착암 작업에서 가장 큰 소음이 발생한다.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착암 작업시 최고치 134.3 dB(A), 한마 작업 시 최고치 118.6 dB(A)이었다. 착암 작업은 하루에 1~2회 하였는데 1회에 3시간 소요된다.

3. 의학적 소견

2005년 특수검진 결과상 소음성 난청 의심소견이 발견되었으나 일을 지속적으로 하였다. 2003년 혈압과 감마지티피가 높은 것 이외에는 다른 질병은 없었다. 2010년 3월 E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4 dBHL, 좌측 60 dBHL였다.

4. 고찰

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이 1시간 동안 105 dB(A)을 넘지 않아야 한다.

5. 결론

김○○의 소음성 난청은

- 순음청력 검사상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(우측 54 dBHL, 좌측 60 dBHL)으로,
- 과거력상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없으며, 광산에서 높은 소음 원인 착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,
- 과거 광산업이 호황일 때는 주 1~3회의 착암 작업으로 110 dB(A) 이상의 소음에 6시간 이상 노출되어,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.